

교사인식 설문조사 (교사노조연맹, N=11,359)

□ 설문조사 개요

• 목적

교합원들이 인식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확인  
현 교육정책에 대한 조합원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정책 방향 모색

• 기간

2024.04.15.~04.26.(12일간)

• 방법

온라인 설문조사(모바일 병행)

• 설문대상

교사노동조합연맹 각 가맹노조 조합원 11,359명

• 주관

교사노동조합연맹

I. 직무만족도

문항	매우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이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
1.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.	2196 (19.3%)	2947 (25.9%)	3640 (32%)	2304 (20.3%)	272 (2.4%)
2. 최근 1년 간 이직 또는 사직(의원면직)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.	1249 (11%)	1392 (12.3%)	1536 (13.5%)	2760 (24.3%)	4422 (38.9%)
3.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고 있다.	5130 (45.2%)	3786 (33.3%)	1932 (17%)	464 (4.1%)	47 (0.4%)
4. 나의 직업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.	605 (5.3%)	807 (7.1%)	1850 (16.3%)	3706 (32.6%)	4391 (38.7%)
5.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.	180 (1.6%)	832 (7.3%)	1592 (14%)	3608 (31.8%)	5147 (45.3%)

II. 전문성 개발 및 지원

1.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성 개발 분야는 무엇인가요?	담당 교과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	담당 교과 영역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수 능력	학생 평가의 실제	에듀테크 활용 능력	학생 생활지도 및 학급 경영	학생 진로 지도 및 상담	범교과 주제 수업(안전, 진로, 환경 등)
	643 (5.7%)	1385 (12.2%)	461 (4.1%)	1699 (15%)	6208 (54.7%)	740 (6.5%)	223 (2%)
2. 최근 일년 동안 참여한 프로그램 중 전문성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?	교원 연수 기관이 개설한 의무 연수	현장 교사 개인이 개설한 연수	노조 등 교원단체가 개설한 연수	자발적 교사 모임을 통한 학습	학교 자체적으로 개설·운영한 연수	학위 또는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	개인 또는 팀 공동 연구에 참여
	1059 (10.9%)	2702 (27.8%)	665 (6.8%)	4871 (50.1%)	423 (4.4%)	732 (6.4%)	907 (8%)
3.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?	교사 개인의 의지 및 능력 부족	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	전문성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부족	전문성 개발을 위한 복무 및 연수비 지원 부족	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		
	115 (1%)	8662 (76.3%)	1339 (11.8%)	719 (6.3%)	524 (4.6%)		

III. 교권

문항		예		아니오	
1. 최근 1년 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.		6464(56.9%)		4895(43.1%)	
2. 최근 1년 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.		6086(53.6%)		5273(46.4)	
3.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한, 민원이나 고소·고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.		1415(12.5%)		9944(87.5%)	
문항	매우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이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
4. 최근 1년 간 ‘정서적 아동학대 고소’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.	672 (5.9%)	451 (4%)	672 (5.9%)	2104 (18.5%)	7460 (65.7%)
5.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.	5250 (46.2%)	3612 (31.8%)	2030 (17.9%)	422 (3.7%)	45 (0.4%)
6.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.	4036 (35.5%)	2833 (24.9%)	3054 (26.9%)	1183 (10.4%)	253 (2.2%)
7. 재직 중인 학교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.	3875 (34.1%)	2713 (23.9%)	3226 (28.4%)	1231 (10.8%)	314 (2.8%)

IV. 교원의 보수 및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

문항	매우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이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
1. 현재의 보수(수당 포함)에 대해 만족한다.	8467 (74.5%)	1994 (17.6%)	667 (5.9%)	198 (1.7%)	33 (0.3%)
2. 공무원(교원)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.	68 (0.6%)	41 (0.4%)	213 (1.9%)	1225 (10.8%)	9812 (86.4%)
3. 학교의 승진제도는 학교 운영에 유능한 관리자를 선발하고 있다.	6032 (53.1%)	2865 (25.2%)	1846 (16.3%)	515 (4.5%)	101 (0.9%)
4.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직 사회의 특성에 적합하다.	8370 (73.7%)	1522 (13.4%)	986 (8.7%)	344 (3%)	137 (1.2%)
5. 재직 중인 학교는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	3312 (29.2%)	2379 (20.9%)	3234 (28.5%)	1949 (17.2%)	485 (4.3%)

V. 교원의 정치기본권 및 입법 과제에 대한 인식

문항	매우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이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
1. 업무시간 외에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.	466 (4.1%)	311 (2.7%)	1229 (10.8%)	1705 (15%)	7648 (67.3%)
2.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과 현장적 합성을 높일 수 있다.	171 (1.5%)	201 (1.8%)	1128 (9.9%)	1906 (16.8%)	7953 (70%)
3. 교사의 본질업무 규정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.	21 (0.2%)	55 (0.5%)	409 (3.6%)	1333 (11.7%)	9541 (84%)
4.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.	8 (0.1%)	28 (0.2%)	204 (1.8%)	801 (7.1%)	10318 (90.8%)
5.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.	7 (0.1%)	32 (0.3%)	182 (1.6%)	801 (7.1%)	10337 (91%)
6.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.	19 (0.2%)	50 (0.4%)	590 (5.2%)	1294 (11.4%)	9406 (82.8%)
7.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, 교사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 개인이 민·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령(조례,규칙 등 포함) 개정이 필요하다.	4 (0%)	1 (0%)	22 (0.2%)	194 (1.7%)	11108 (98%)

## VI.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[학점]

문항	A	B	C	D	F
1-1.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	36 (0.3%)	148 (1.3%)	686 (6%)	1710 (15.1%)	8779 (77.3%)
1-2. 현장 적합성	40 (0.4%)	106 (0.9%)	655 (5.8%)	1762 (15.5%)	8796 (77.4%)
1-3. 교육의 질 제고 측면	38 (0.3%)	178 (1.6%)	981 (8.6%)	1885 (16.6%)	8277 (72.9%)
1-4.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	69 (0.6%)	197 (1.7%)	859 (7.6%)	1526 (13.4%)	8708 (76.7%)
2-1. “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”	57 (0.5%)	84 (0.7%)	359 (3.2%)	565 (5%)	10294 (90.6%)
2-2. “교육·보육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”	69 (0.6%)	107 (0.9%)	498 (4.4%)	749 (6.6%)	9936 (87.5%)
2-3. “교권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”	750 (6.6%)	704 (6.2%)	1476 (13%)	1640 (14.4%)	6789 (59.8%)
2-4. “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” (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)	440 (3.9%)	691 (6.1%)	1458 (12.8%)	2054 (18.1%)	6716 (59.1%)

### ※ 일반 배경

#### 1. 성별

구분	응답자 수	비율
① 남	1,301명	11.5%
② 여	10,058명	88.5%
전체	11,359명	100%

#### 2. 연령

구분	응답자 수	비율
① 20대	1,700명	15%
② 30대	4,090명	36.1%
③ 40대	4,480명	39.5%
④ 50대 이상	1,061명	9.4%
전체	11,359명	100%

#### 3. 경력

구분	응답자 수	비율
① 5년 미만	1,391명	12.2%
② 5년~10년 미만	2,507명	22.1%
③ 10년~20년 미만	4,631명	40.8%
④ 20년~30년 미만	2,613명	23%
⑤ 30년 이상	217명	1.9%
전체	11,359명	100%

#### 4. 학교급

구분	응답자 수	비율
① 유치원	464명	4.1%
② 초등학교	9,359명	82.5%
③ 중학교	812명	7.2%
④ 고등학교	583명	5.1%
⑤ 특수학교	130명	1.1%
전 체	11,359명	100%

#### 5.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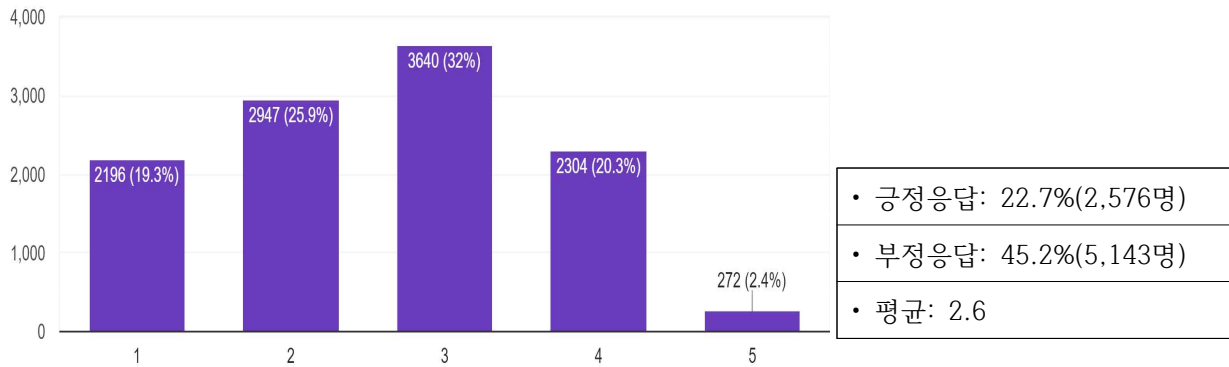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자 수	비율
① 강원	405	3.6%
② 경기	4,203	37%
③ 경남	444	3.9%
④ 경북	322	2.8%
⑤ 광주	158	1.4%
⑥ 대구	329	2.9%
⑦ 대전	572	5%
⑧ 부산	310	2.7%
⑨ 서울	2,467	21.7%
⑩ 세종	119	1%
⑪ 울산	338	3%
⑫ 인천	679	6%
⑬ 전남	256	2.3%
⑭ 전북	170	1.5%
⑮ 제주	75	0.7%
⑯ 충남	321	2.8%
⑰ 충북	191	1.7%
전 체	11,359	100%

## (그래프)

### I. 직무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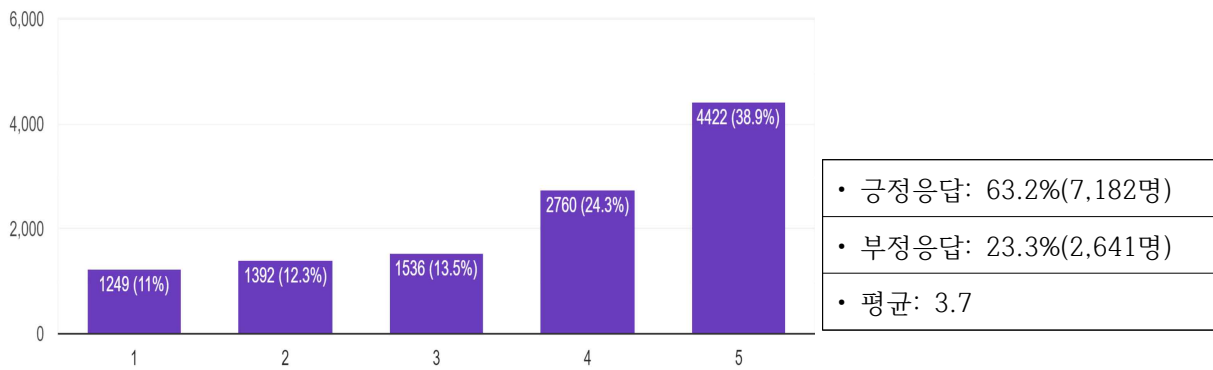
1.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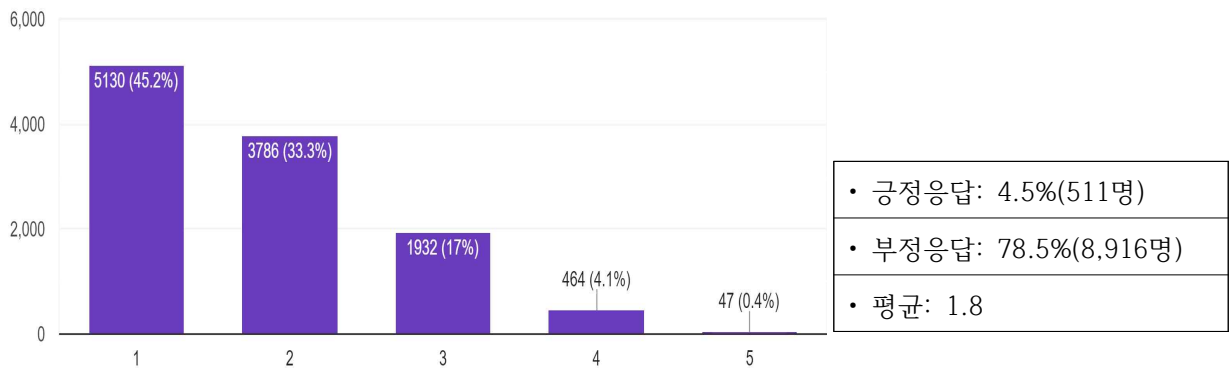
2. 최근 1년 간 이직 또는 사직(의원면직)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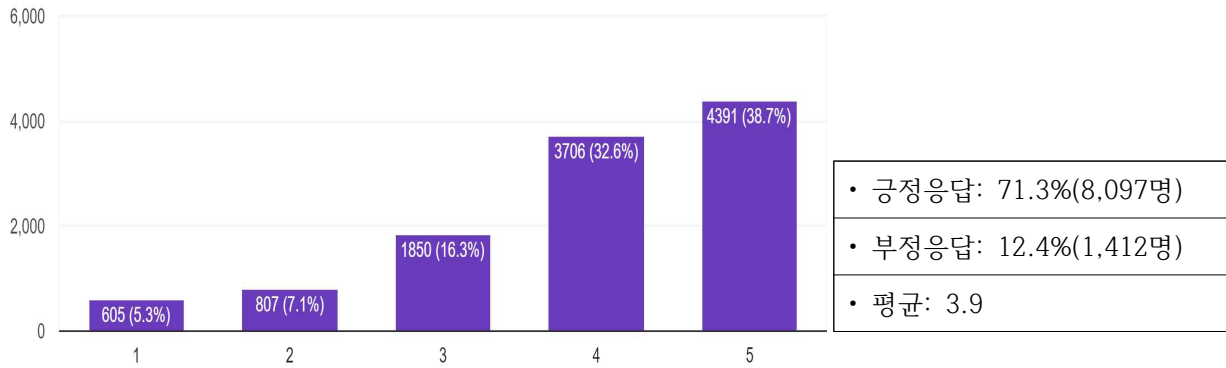
3.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고 있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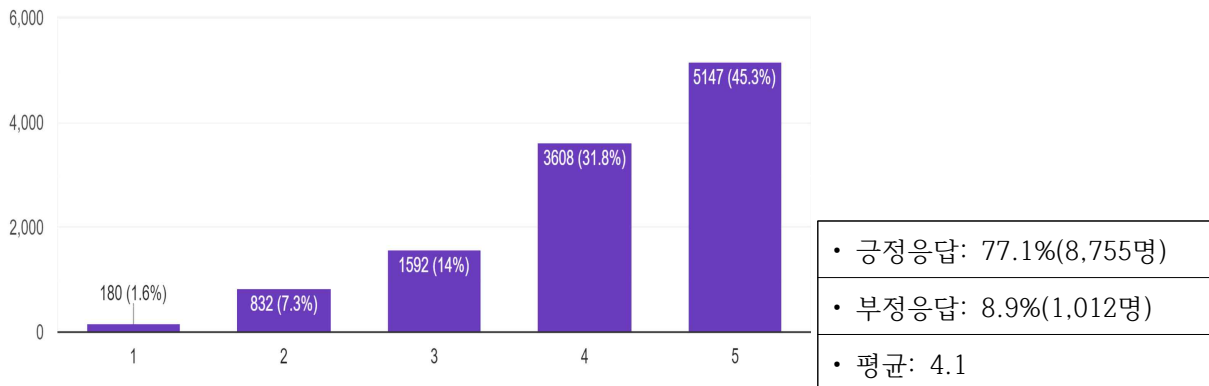
4. 나의 직업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.

응답 11,359개



5.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.

응답 11,359개



## II. 전문성 개발 및 지원

### 1.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성 개발 분야는 무엇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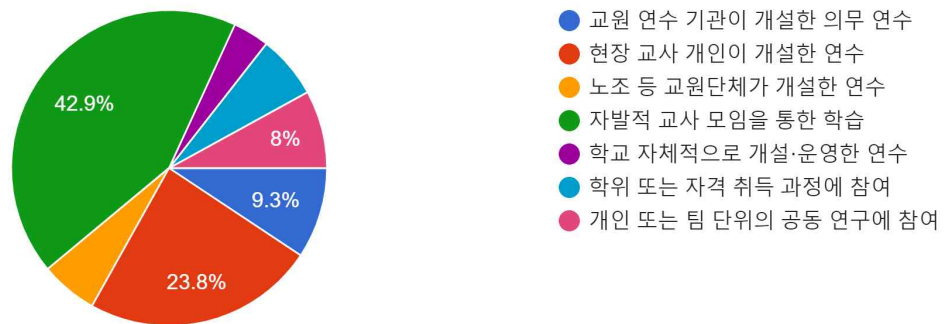
응답 11,359개

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1순위: 학생 생활지도 및 학급 경영 54.7%(6,208명)           |
| • 2순위: 에듀테크 활용 능력 15%(1,699명)                  |
| • 3순위: 담당 교과 영역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수 능력 12.2%(1,385명) |

### 2. 최근 일년 동안 참여한 프로그램 중 전문성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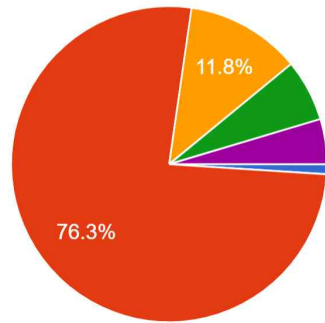
응답 11,359개

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1순위: 자발적 교사 모임을 통한 학습 - 42.9%(4,871명)   |
| • 2순위: 현장 교사 개인이 개설한 연수 - 23.8%(2,702명)   |
| • 3순위: 교원 연수 기관이 개설한 의무 연수 - 9.3%(1,059명) |
| • 4순위: 개인 또는 팀 단위의 공동 연구에 참여 - 8%(907명)   |
| • 5순위: 학위 또는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 - 6.4%(732명)    |

### 3.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?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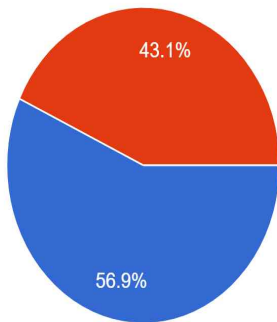
- 교사 개인의 의지 및 능력 부족
- 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
- 전문성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부족
- 전문성 개발을 위한 복무 및 연수비 지원 부족
-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1순위: 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 - 76.3%(8,662명)        |
| • 2순위: 전문성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부족 - 11.8%(1,339명)    |
| • 3순위: 전문성 개발을 위한 복무 및 연수비 지원 부족 - 6.3%(719명) |

## Ⅲ. 교권

### 1. 최근 1년 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.

응답 11,359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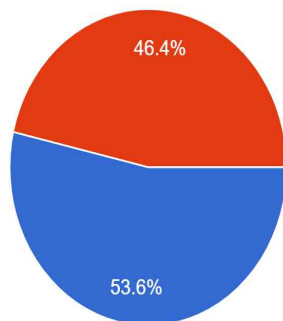


- 예
- 아니오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예: 56.9%(6,464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응답자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|

### 2. 최근 1년 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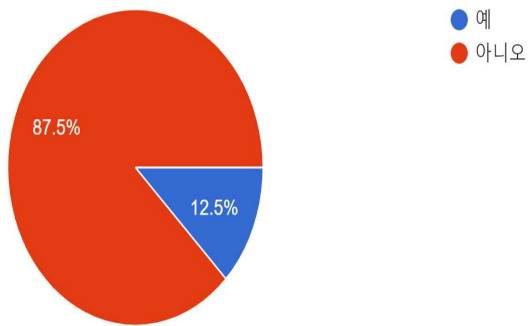
- 예
- 아니오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예: 53.6%(6,086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응답자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|



3.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한, 민원이나 고소·고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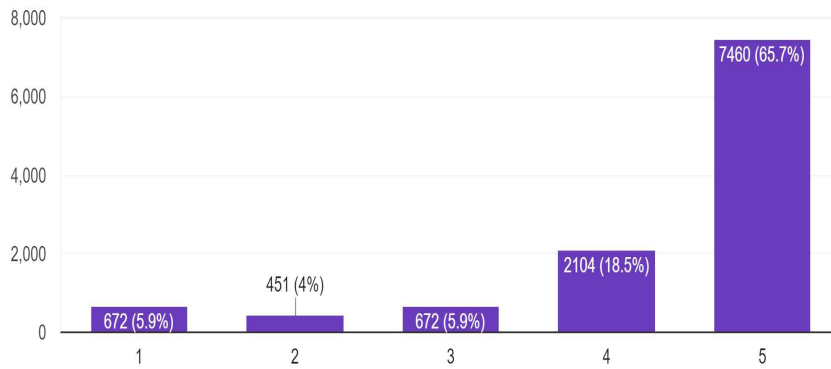
응답 11,359개



• 예: 12.5%(1,415명)

4. 최근 1년 간 '정서적 아동학대 고소'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.

응답 11,359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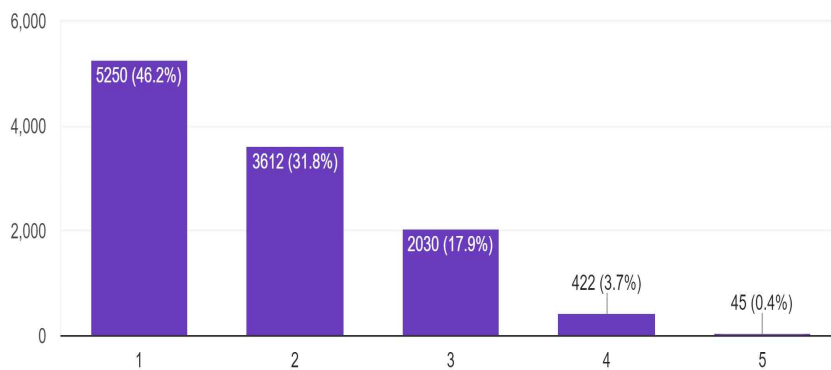


• 긍정 응답: 84.2%(명)  
- 매우 그렇다: 65.7%

• 부정 응답: 9.9%(1,123명)

5.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.

응답 11,359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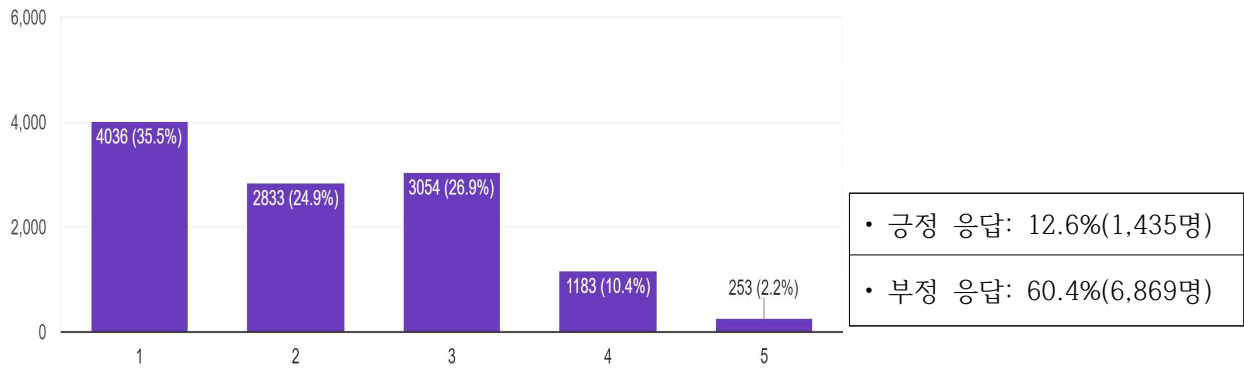


• 긍정 응답: 4.1%(467명)

• 부정 응답: 78%(8,862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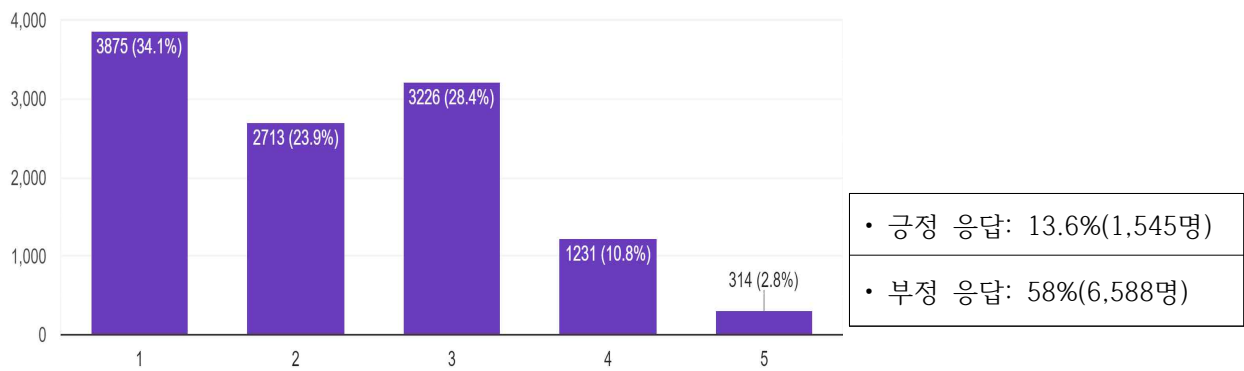
6.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.

응답 11,359개



7. 재직 중인 학교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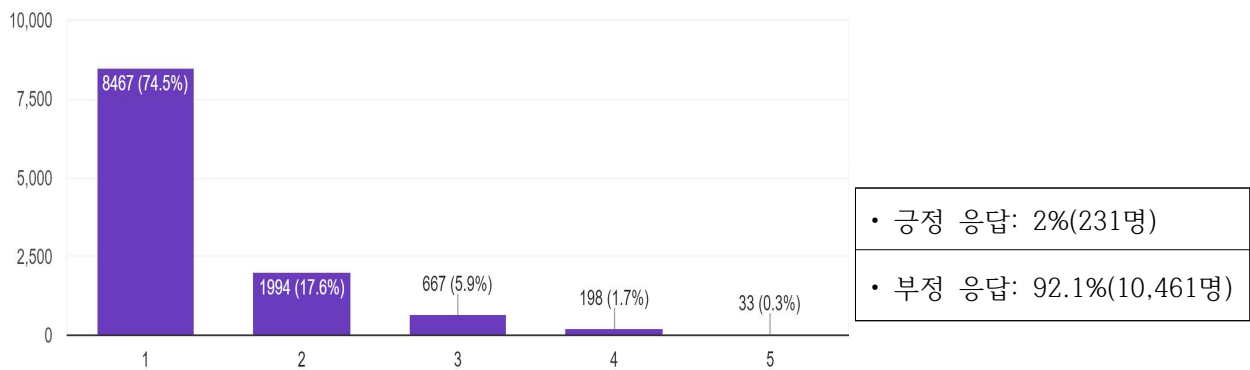
응답 11,359개



## IV. 교원의 보수 및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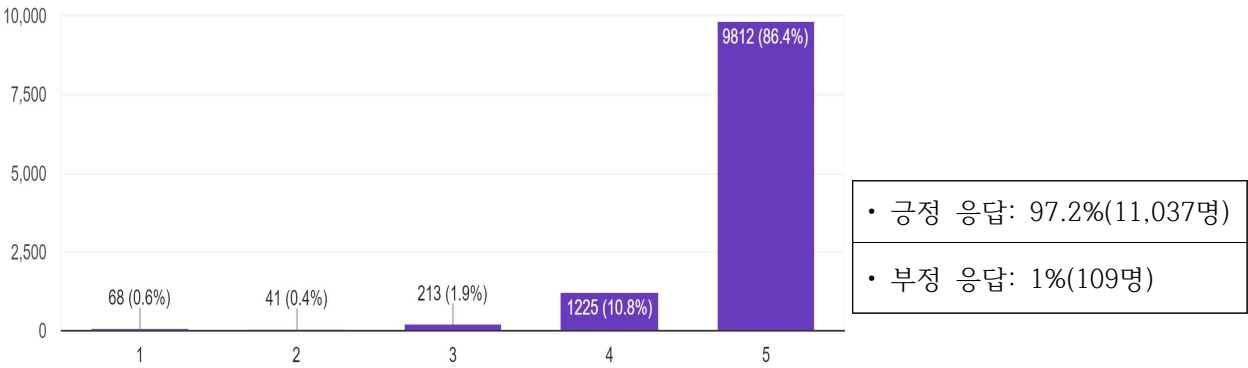
1. 현재의 보수(수당 포함)에 대해 만족한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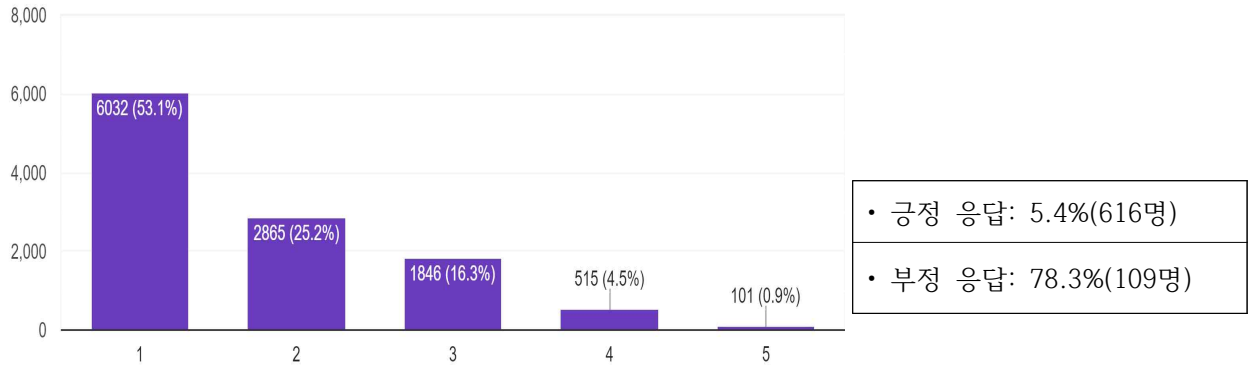
2. 공무원(교원)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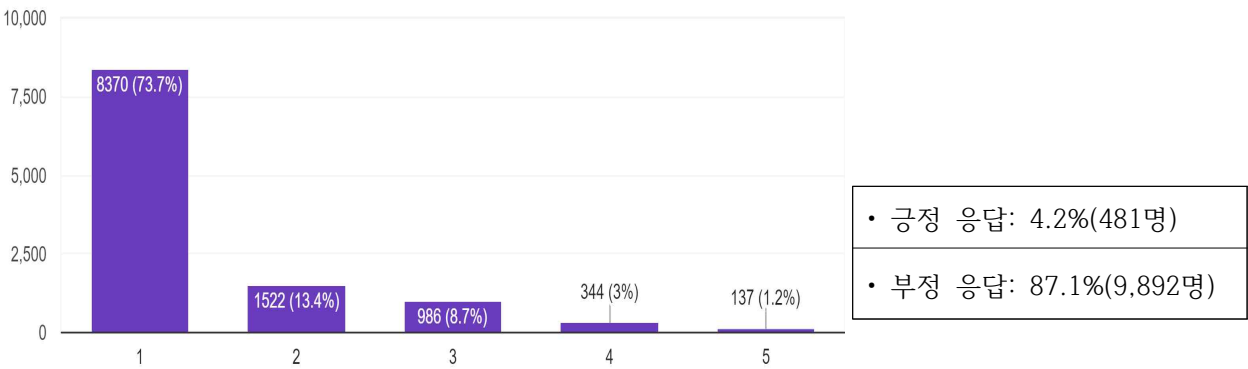
3. 학교의 승진제도는 학교 운영에 유능한 관리자를 선발하고 있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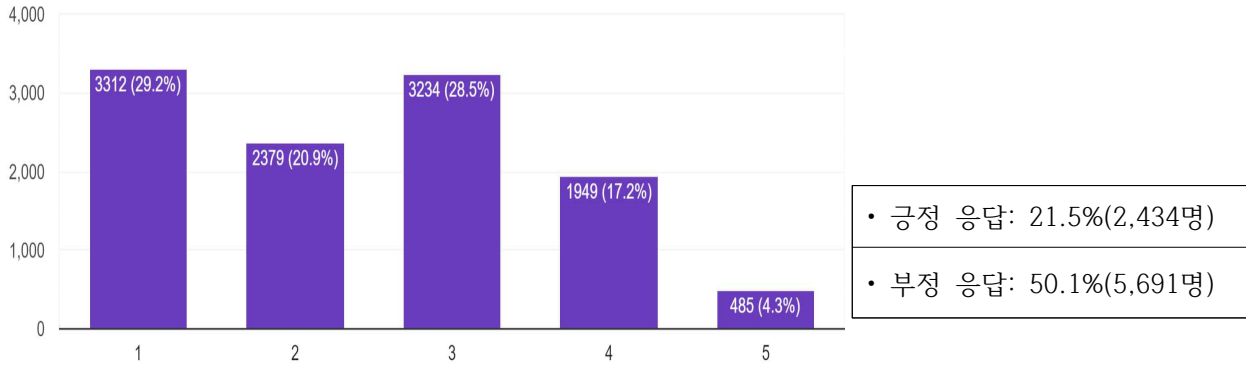
4.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직 사회의 특성에 적합하다.

응답 11,359개



5. 재직 중인 학교는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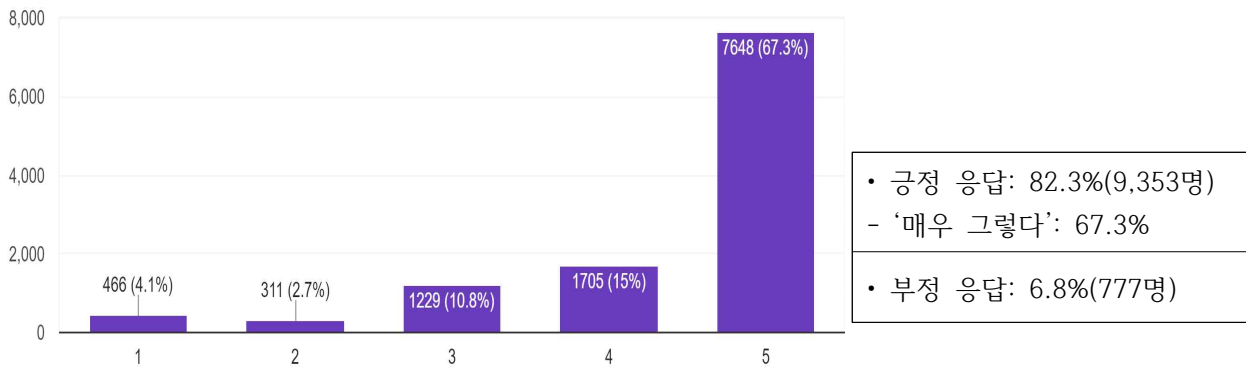
응답 11,359개



## V. 교원의 정치기본권 및 입법 과제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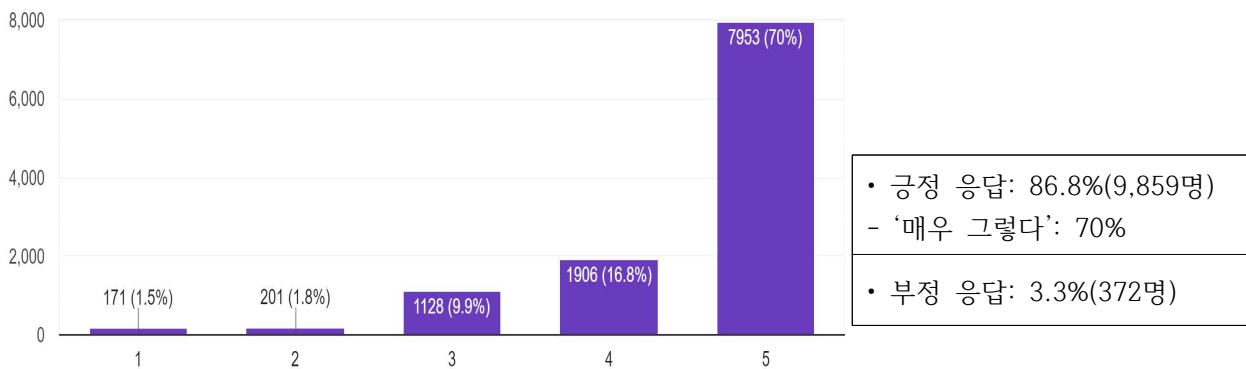
1. 업무시간 외에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. (정당가입, 출마, 후원 등)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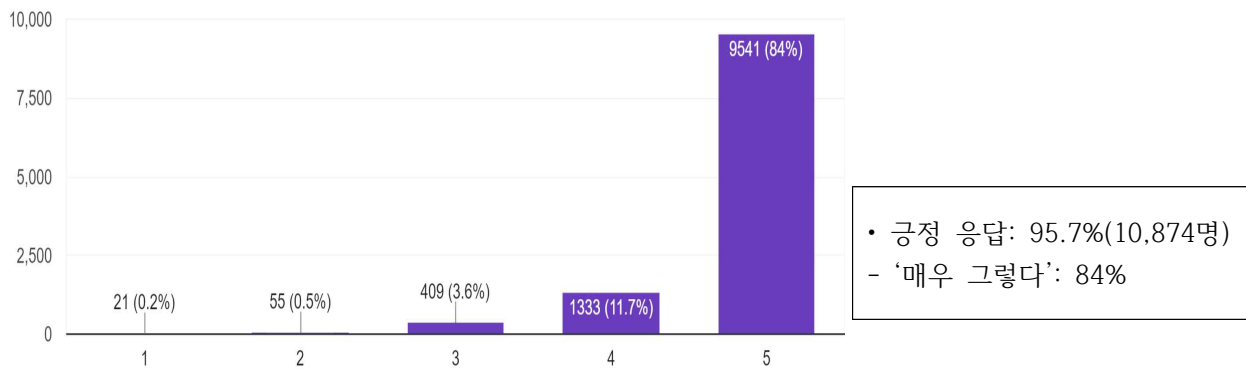
2.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과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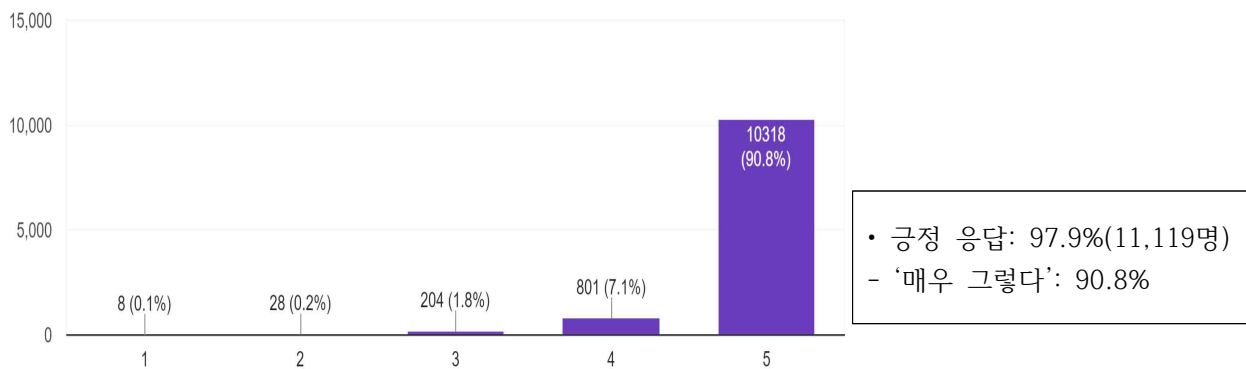
3. 교사의 본질업무 규정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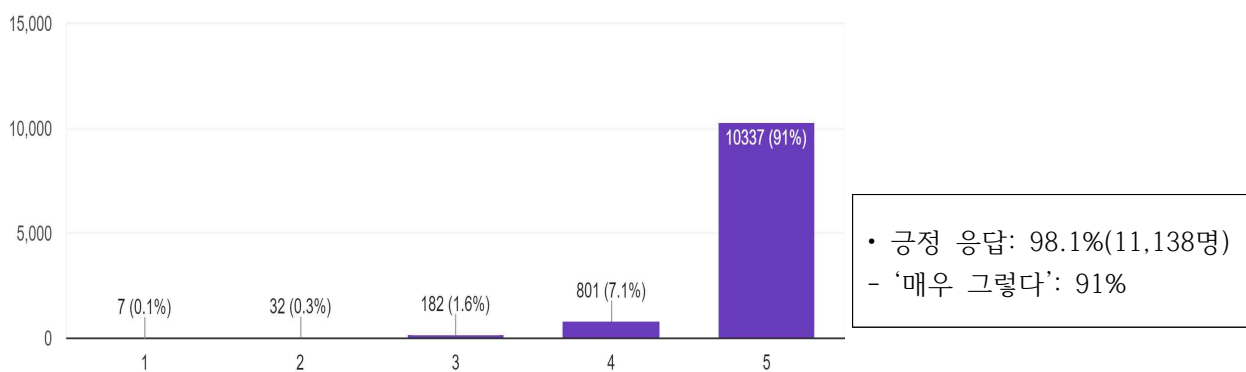
4.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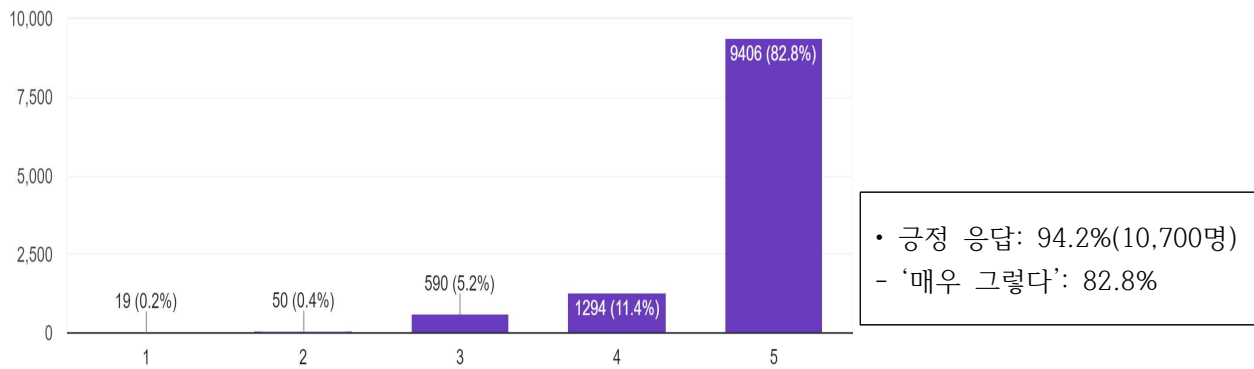
5.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.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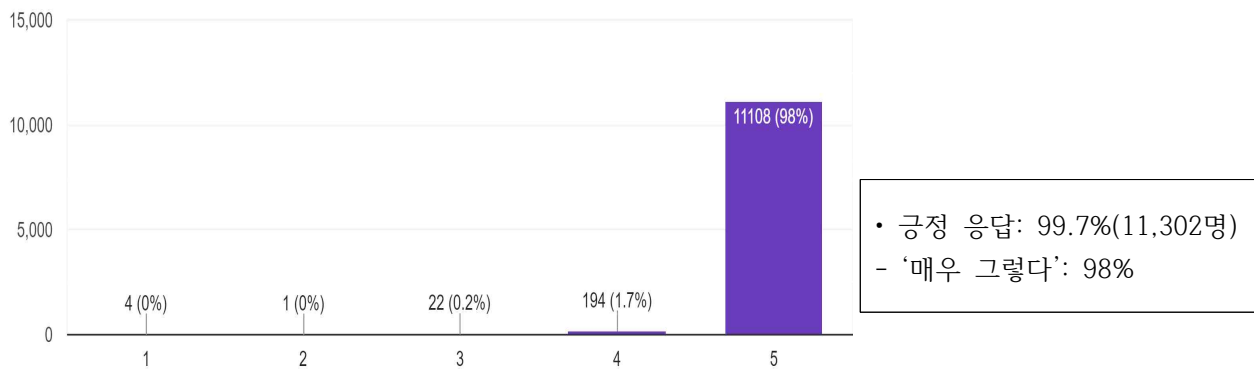
6.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.

응답 11,359개



7.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, 교사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 개인이 민·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령(조례,규칙 등 포함) 개정이 필요하다.

응답 11,329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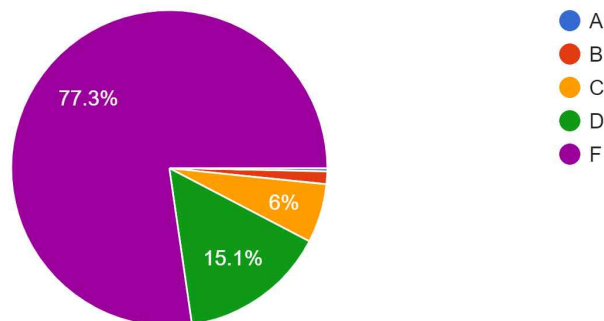


## VI.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

1. 다음 기준에 따라,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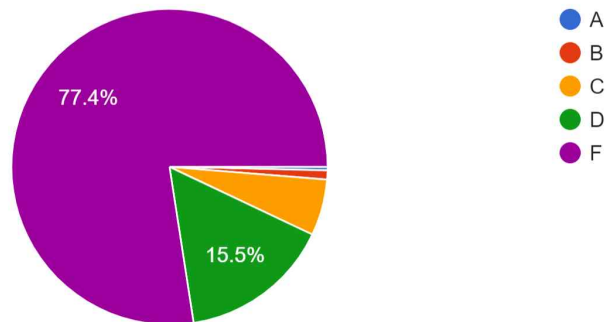
1-1.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정도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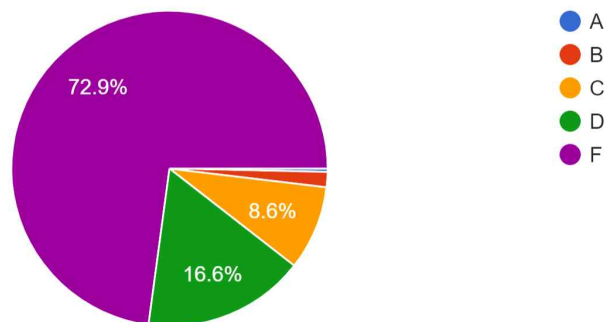
## 1-2. 현장 적합성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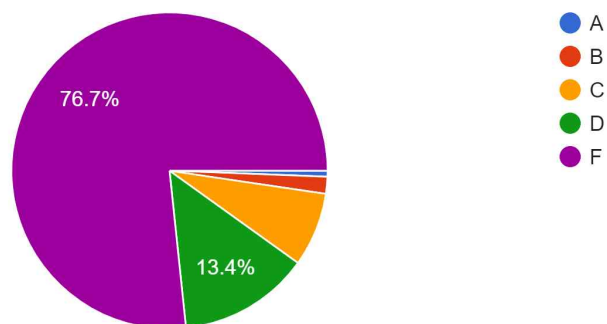
## 1-3. 교육의 질 제고 측면

응답 11,359개



## 1-4.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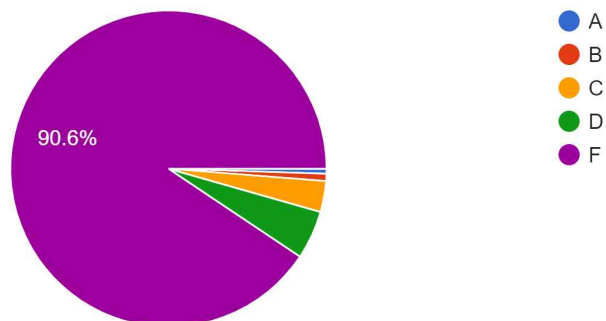
응답 11,359개



2. 다음은 '2024교육부 중점 추진과제'입니다. 각 과제의 추진 상황을 학점으로 평가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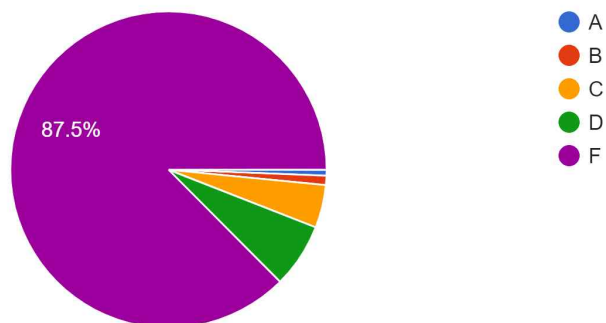
2-1. "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"

응답 11,359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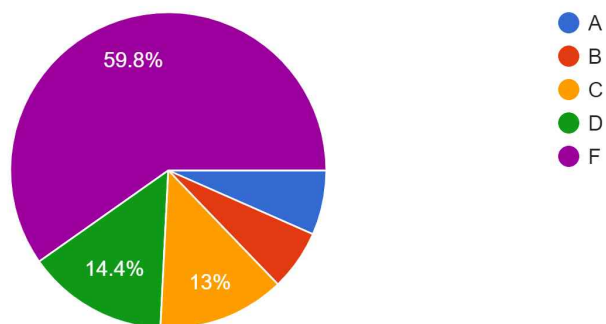
2-2. "교육·보육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"

응답 11,359개



2-3. "교권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"

응답 11,359개





## 2-4. “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” (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)

응답 11,359개

